

교회소식

1. 7월 정기 당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2. 각 선교회 월례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임원들은 유익한 월례회가 되도록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3. 예배 후 권사 기도회가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
4. 1남선교회 주관으로 개인별 전교인 사진 촬영이 다음 주일(8월 1일)에 있습니다. 촬영할 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촬영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가족사진도 가능).
5. 금요 저녁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성전 이전), 인생살이의 여러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6. 춥고 습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육으로 균형 잡힌 삶으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7. 창립 주일과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 교회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사진을 오늘까지 전시합니다.
9. 오늘 뉴질랜드 장로교단 오클랜드 북노회 주관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A u g u s t

교회사역일지

8월 8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8월 15일(주일)
그루터기 주일
8월 22일 (주일)
권사 기도회
8월 25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8월 4일 (주일)
현석호 장로
8월 7일 (수)
한누리 집사
8월 11일 (주일)
박제용 장로
8월 14일 (수)
강동호 집사

7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이선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30호 2021.07.25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예배소서	-----	에베소서 5:19-21
*찬송	-----	21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	287장 다함께
대표기도	-----	이정인 집사
성경봉독	-----	창세기 24:10-15, 21-27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나는 주만 따라가리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	지금 사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태한 목사
찬송	-----	301장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부엌에 점심때부터 강하게 내리쬐던 햇빛이 이제는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움직이고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매일 움직이고 살아 있길 기도드립니다.

60도의 폭염, 모든 어려움: 저는 손목 건초염 통증이 심해져 두 손 모두 통증이 왔습니다. 가벼운 물건도 들기 어렵고 모든 생활이 느려지고 일을 할 수 없어 세미나 참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K 도시는 그 전주까지 기온이 60도가 넘었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 N 목사님은 더위에 쓰러지시고, 세미나 장소인 A 자매 집 에어컨은 고장이고,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고 도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세미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간 K 도시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N 목사님 부부, A와 E, 교회 자매들과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취업 비자 때문에 며칠씩 시간 내기 어려워서 (학원에서 비자를 주기 때문에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반나절, 몇 시간만을 참석을 했는데 올해 영주권을 받고 학원 수업을 조정할 수 있어 처음으로 세미나에 전부 참석했습니다.

21시간의 기차,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차 밖으로 광활하고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보면서 21시간 반 만에 K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기온은 36도 정도까지 떨어져 덥지만 에어컨 없이도 견딜만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저희 9명 포함 20명 안팎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를 제외하고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고, 발을 씻기고,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림과 댄스로 치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놀라운 주님이셨습니다. K 도시에서 모든 염려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하길 간구합니다.

기도제목

1. 세미나에 참석한 자매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 않도록.
2. 제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손목 통증이 낫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임태원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6:17-21
봉	독	Sermon	하나님께 소망을
설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488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7월 18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변하지 않는 복음, 변해야 하는 교회> 롬1:17, 마16:17-18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속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창립 22주년을 맞아 변치 않는 복음을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자문해 봅시다.

1)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한자로는 복(福) 있는 소리(音) 즉 복된 소리, Good News, Gospel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Evangelium)이라고 하는데 승전 소식이나 세금 징수 등을 알리던 로마 황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시민에게만 기쁜 소식인 로마 중심의 복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시민만이 아닌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에는(막 1:14-15) 로마의 유앙겔리온과는 달리 제한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롬 1:17)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롬 5:8)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정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롬 3:10, 23).

2) 이 복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마 16:18). 교회는 건물도 아니며 교회 건물은 단지 변치 않는 진리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부름받은 거룩한 모임(에클레시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고전 1:2). 그렇다면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롬 1:16) 세상을 두려워하며 타협하고 무릎 꿇고 살고 있다면 변질된 복음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과 전통이 앞서는 복음은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며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성장해야 변함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지혜로 내가 성장하며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변화 없이 정체되면 변질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혹은 나는 내 뜻을 따르는가의 진지한 성찰과 결정의 연속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면 나에게 손해이며 불리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창립 22주년을 맞아 교회의 몸 된 우리 각 사람은 복음을 위해 변화하고 있는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자라나지 않고 정체되며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돌이켜 보며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변질된 교회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으로 달라지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성장하는 갈보리 교회와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악한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2. 타성에 젖거나 습관적이 아닌 날마다 진보하는 신앙을 추구하도록.
3. 하나님께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도록.